

# 광주문화신탁, 나눔경영 실천 앞장

본보 2023 캠페인 '아름다운 사회 함께 만들어요'

인재육성 장학생 26명 지원...선발 인원·대상지 확대  
고교생 연 100만·대학 졸업할 때까지 연 300만 지원

광주문화신탁이 경제적 지원을 통해 지역인재육성에 앞장서는 등 나눔경영의 본보기를 실천하고 있다.

자신 규모 전국 2위인 광주문화신탁의 사회공헌 활동이 지역 사회의 운기를 불어넣는 등 서민대표 금융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문화신탁 복지장학재단은 18일 "지난 15일 광주문화신탁 첨단본점에서 제13기 인재육성 장학생으로 선발된 26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장학생 선발인원이 26명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1년 4월부터 광주문화신탁의

공동유대지역(조합원가입 기준)이 기존 북구에서 광산구까지 확대되면서 올해부터는 장학생 선발기준 범위도 함께 확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기존에 지원하던 북구 인문계고 13개교에서 올해부터는 광산구 인문계고 12개교를 포함하고, 예술고 2명, 체육고 2명, 진흥중학교의 체육특기자 1명도 선발대상에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꿈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고자 수혜의 폭을 확대하게 됐다.

이들에게 고교 재학기간 동안에는 연간 100만원씩(예술고 100만원, 체육고 160만원, 진흥중(체육특기자) 280만원)을 지원하고, 대학 입학부터 졸업 때까지는 연간 300만원씩 장학금을 지

급한다. 6년 간 학생 1명이 받는 장학금은 1천400만원 이상이다. 이들 가운데 매년 10명을 추가로 선발해 30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이번 선발된 13기 장학생들에게는 6년간 총 3억5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문화신탁 복지장학재단은 2012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지역 학생 179명에게 장학금 17억3천900만원을 지급했다.

고영철 광주문화신탁 복지장학재단 이사장은 "선발된 장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갈고 닦아 대한민국의 큰 나무로 성장하는데 오늘의 장학금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임재만기자



광양산 '남고 홍매실' 판매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이 광양산 '남고 홍매실'을 본격 판매한다. 사진은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남고 홍매실'을 선보이는 모습. <농협유통 제공>

## “임금도 조건도 맘에 안들어” 쉬는 청년 3만6천명 늘었다

지난달 20대 인구 전년비 19만6천명 감소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따라 20대 청년 인구와 취업자 수는 줄어두고 있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쉬는 청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는 '원하는 임금 수준·근로조건'의 일치여부가 없다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20대(20~29세) 인구는 615만5천명이었다.

635만1천명이었던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9만6천명 감소했다.

20대 인구는 2021년 7월 8천명 증가를 마지막으로 감소세로 전환, 22개월째 전년 같은 달보다 줄어두고 있다.

취업자·실업자 수 역시 인구 감소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지난달 20대 취업자 수는 지난해 동월보다 6만3천명 줄어 33만3천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째 감소세다.

실업자 역시 지난해보다 6만7천명 줄어든 24만1천명이었다.

해당 연령대 인구 자체가 줄다 보니 취업자도 실업자도 함께 줄어드는 것이다.

반면 이러한 인구 감소 흐름에도 구직도 취업 준비도 하지 않고 쉬는 청년의 수는 오히려 늘었다.

지난달 경제활동 상태를 물었을 때 '쉬었음'이라고 답한 20대는 지난해보다 3만6천명 증가한 35만7천명이었다.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쉬었음 인구가 증가한 연령대는 20대가 유일했다.

통계청 조사에서 인구는 크게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뉜다.

경제활동 인구에는 취업자와 구직 활동을 했으나 취업하지 못한 실업자가 포함된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들은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된다. 별다른 사정 없이 구직도 취업도 하지 않은 '쉬었음'도 비경제활동 인구에 속한다.

지난달 20대 비경제활동 인구 활동 상태 분류 가운데 '쉬었음'은 정규교육 기관 통학(99만7천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취업 준비(33만1천명)나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11만3천명)보다도 그냥 쉬는 청년의 수가 더 많았다.

지난달 취업 의사가 있었던 20대 비경제활동 인구를 대상으로 최근 구직을 하지 않았던 이유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라는 것 같아서(17만3천명)였다. /연합뉴스

**난방비 똑똑하게 절약하는 방법!**

- ①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20°C입니다. 난방온도 1도 낮추면 에너지사용량을 7% 줄일 수 있습니다.
- ② 북쪽이와 문풍지로 외풍을 막으면 실내온도를 2~3도 기량 높일 수 있습니다.
- ③ 내복, 양말 등 실내에서 방한용품을 활용하면 체감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④ 전열기는 꼭 필요한 때만 사용하고, 사용 시에는 소비전력을 꼭 확인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문화신탁 복지장학재단은 지난 15일 광주문화신탁 첨단본점에서 제13기 인재육성 장학생으로 선발된 26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광주문화신탁 복지장학재단 제공>

## 광주TP, '지방 현실과 균형발전 정책 세미나' 개최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 초청

광주테크노파크(광주TP)는 지난 16일 광주테크노파크 생활지원로봇센터 대강당에서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을 초청,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미나는 오는 7월10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앞서 정부정책 및 신산업 기술 대응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열렸다.

'현 정부의 지방시대 그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산·학·연·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수도권 풀림 현상과 비수도권 지방소멸 위기감 확대 속 분권형 국가경

시스템 구축, 지방의 산업 활성화와 투자촉진 등 지방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5대 지방시대 핵심과제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에 맞는 우리 지역의 AI 등 지능화 기술기반의 지방혁신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서민기자

## 차기 한전 사장에 김동철·김종석 등 거론

개혁 성향 외부인사 '주목'

국가 기간 에너지 산업을 책임지는 한국전력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된 지 19일로 한 달이 된다. 한전은 조만간 차기 사장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총자산 255조원에 10개 자회사를 거

느린 최대 에너지 공기업인 만큼 한전의 차기 사장직을 누가 맡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차기 한전 사장으로 4선(17~20대)의 김동철 전 국회의원, 김종석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박일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준동 전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이 허마평에 오르내린다.

정부와 업계 인콰에선 김동철 전 의원과 김종석 위원장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역대 한전 사장 중에는 에너지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산업부 차관 출신이 많았지만, 최근 한전이 처한 대내외 요건을 고려하면 기존의 조직 논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외부 인사의 개혁성

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맞닿아 있다. 김동철 전 의원의 경우 서울대 법대·산업은행 출신으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광주 광산갑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20대 총선까지 내리 4선을 지냈다.

김종석 위원장은 20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도 역임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속캠페인

### 전통과 현재의 만남 시간이 멈춘 그곳에서의 초대, 1913송정역시장으로 놀러오세요!

107년의 시간 그리고...

1913년에 이곳에서 처음 '매일 송정역전시장' 이 시작되었습니다. 107년의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을 [1913송정역시장]으로 바꿨고, 누적된 시간이 많은 만큼, 송정역시장은 상인들에게는 삶의 터전이고 방문객들에게는 다양한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100년간 이곳을 지켜온 36개의 기존 상점들의 간판 글씨, 가게 형태, 가게 색상 중 하나는 꼭 남겨두었습니다. 옛 정취를 살리자는 취지로 건물 자체의 리모델링은 최소화하고, 간판의 디자인은 상인들의 추억을 담아 제작되었습니다. [1913송정역시장]은 바꾸기 위한 변화가 아닌, 지키기 위한 변화로 탄생한 시장으로 광주송정 KTX 역에서 도보로 3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광주의 필수 여행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기휴무 - 매월 둘째주 월요일, 자율 휴무- 매월 넷째주 월요일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 TV** 후원 : **광 산 구** 문의 : 062)650-2099